

# 지역 유통·외식업계, 수능 수험생 응원 상품 '눈길'

디저트카페, '레터링 마카롱' 인기 수제떡집, '합격' 모양 망개떡 선풍 백화점 등 '수능 선물' 기획전 마련 '한파 대비' 보온병·도시락 등 할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지역 유통·외식업계 등 지역 매장 곳곳에서 수험생을 위한 '합격 응원 선물'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도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가족과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을 고르며 다가오는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오후 방문한 광주 북구의 한 디저트 카페. 마카롱과 수제 초콜릿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인 신모(39)씨는 얼마 전부터 수능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빼빼로데이와 수능 날이 가까워져 오면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할 특별한 디저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곳 카페에서는 '반짝반짝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와 같은 응원 문구를 새길 수 있는 '레터링 마카롱'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 마카롱을 담은 포장 상자에도 '너를 응원할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몽클함을 더했다. 꽃다발을 한 아름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을 주는 '꽃초콜릿'도 눈길을 끌었다.

디저트 카페 업주 신씨는 "온라인 판매도 함께하고 있어 타 매장과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디저트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 같다. 매출보다도 고객이 좋은 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지역 유통·외식업계가 수험생을 위한 '합격 응원 선물'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의 한 디저트카페에서 판매하는 '수능 응원 레터링 마카롱'.

기를 남겨주거나 매장을 재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특별한 날에 보탬이 됐다는 생각이 들기분이 좋아진다"며 "고객들에게 조금 더 좋은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수제떡집도 '합격'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바람떡, 수제 까불이 등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높은 찹쌀떡과 빼빼로데이 간식을 한 상자에 담은 선물 패키지도 시선을 끌었다. 선물 세트에는 간식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행운이 함께하기를', '수험생 아자아자 파이팅!', '다 잘될 거야!', '행운부적' 등의 문

구가 적힌 스티커와 카드도 포함되어 있어 특별함을 더했다.

사장 정모(40)씨는 "합격 글자 모양 떡", '네잎클로버 카드'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아이템이 많을수록 인기가 높다. 명절·연말 등 특별한 기념일이 많은 시기에는 선물 수요가 증가해 매출이 상승하는 편이다"며 "한번은 수험생 아이 선물을 사러 온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작은 서비스를 챙겨드렸는데, 선물을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몽클해졌다.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과 수험생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 유통업계도 다채로운 '수험생 응

원 선물'을 준비해 고객 발길 붙들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수능 선물 아이템 기획행사를 진행 중이다. 송정동 인기 디저트 맛집 '광카롱'에서는 '수능 마카롱 세트'와 '빼빼로 세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보향떡집에서는 수능 응원 선물로 제격인 '딸기찹쌀떡'과 '빼빼로데이 가래떡'을 구매할 수 있다. 베비에르도 합격 기원 '찹쌀떡'과 '화과자세트' 등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합격기원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수험생에게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초코스타크과자 등 200여종의 과자류를 정가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초코스타크과자의 대표격인 '롯데 빼빼로 4종(초코/아몬드/화이트쿠키/크런키)'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다른 인기 초코과자인 '네슬레 킷캣 미니 오리지널(405g, 9g\*45입)'은 1개 구매시 1개를 더 제공한다. 스페셜 패키지 '롯데 뉴진스 빼빼로 기획 5종(8입/10입)도 준비돼 있다.

수능 날 한파를 막아줄 보온용품들도 판매한다. '씨모스 보온병/도시락/텀블러' 전품목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적으로는 최대 6시간 보온대, 장시간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캐리루프 텀블러', '일체형 대용량 도시락'이 있다. 또 '올덴 화룻볼 핫팩(특대형)' 등 핫팩 전 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이처럼 각 업계가 준비하는 다채로운 '합격 응원 선물'에 지역 소비자들도 선물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동생이 반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23)씨는 "마트·빵집·카페 등 곳곳에서 수험생 응원 선물을 선보이니 수능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진다. 디저트부터 보온용품까지 지역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선물 구매 선택지가 많아진 점이 좋은 것 같다"며 "지나해에도 동생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너를 응원한다' 같은 말을 직접 하기가 부끄러워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했다. 올해도 동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나다운기자

## 광주은행, '빨리Wa요 산타' 이벤트 마련

광주은행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온가족안심예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빨리Wa요 산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온가족안심예금' 상품에 가입한 후 광주와뱅크(APP)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별도 응모 신청해야 하며, 기존 가입 고객도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고객 중 선정순 500명에게 더벤티커피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하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전체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협안심한우 1++ 프리미엄 한우 구이 세트 1.2kg(10명) △농협안심한돈 선물세트 1kg(10명) △한삼인 흥삼정 스틱 액티브 10ml\*32포(10명)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30명), 총 60명에게 성탄절을 기념해 특별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APP),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10월 출시한 '온가족안심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권범 기자

## 전남 농수산물·공산품, 유럽서 1천만달러 수출 협약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여 해조류 등 205건 상담 성과

전남도와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1일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수출 유망기업 15개 사를 파견, 총 103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49개국에서 3000여 한인 경제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시·수출상담회,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행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전시·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농수산물 8개 사와 공산품 7개 사가 참여

해 205건의 상담과 1035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은 구매자 발굴 및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잠재 구매자에게 상품 샘플을 제공하고 매칭 과정을 3회 이상 추진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주)은돌라이프가 난방기 제품 500만 달러 △(주)지너스인터네셔널이 클렌징밤 제품 150만 달러 △농업회사법인 (주)골드힐이 유자차 100만 달러 △봉강천 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비료 100만 달러 △(주)포비드림이 재난안전장비 100만 달러 △(주)바다명가가 해조류 50만 달러 △다산명가(주)가 전통식품 30만 달러 △유한회사 김시월이 김 제품 5만 달러 등 수출협약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아라움이 오징어 스낵, 해산이 조미김, ㈜해미원이 전복, ㈜동서산업이 컬러우드칩, ㈜신성메이저글로벌가 산업용 안전장갑, 해송식품(주)가 도시락 김, 디엑스엠이 염모제 등을 수출해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현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국제 경제의 불안정과 물류비 상승 속에서도 전남 기업이 세계 한인 경제인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K-푸드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수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재테크 칼럼

### '투자의 첫 걸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종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바닥에서 사서 천정에서 파는 것이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며 사고파는 때를 맞추는 것이 투자의 전부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얼핏 단순할 것도 같은,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 뒷면을 적어도 50%는 맞출 것 같은데 현실 투자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보다 실패한 투자자가 훨씬 많다.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이 시

장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이유는 공포와 탐욕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포와 탐욕을 통제하는 심리를 단련하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의 실수는 자신 또는 증권방송 등에 등장하는 자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천정과 바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정과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어떤 탁월한 투자자라도 애초에 불가능하다.

바다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급락하거나 천정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는데 하늘 높이 상승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자제력이 무너지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낙락으로 떨어진다. 마음속에 공포와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되고 시장의 방향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도 이 때부터다. 더구나 빛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어쩌다 운으로 바닥을 몇 번 맞아서 기고만장한 투자자가 있다면

이 역시 실패를 향한 열차에 탑승한 것과 다름없다.

시장의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다. 두고두고 잊지 마라. 무릎에서 사라는 것은 이 정도면 무릎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무릎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이 하락했다고 분석한 종목이 있다면 그때부터 시간을 두고 분할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나의 성향에 맞게 쪼개서 매수하다 보면 평균단가가 무릎이 되는 것이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분할로 매도하다 보면 어깨가 만들어진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천정과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닥과 천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투자의 첫 걸음이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